

훈련 중 추락해 수장된 해경 무인헬기

지난해 서귀포해경 등 경비함정에 7대 배치돼 운용 지난 4일 사고 발생... 해경, 수심 45m에 인양 포기 불법조업 단속·채증 차질 우려... 사고조사위 구성

지난해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처음 배치된 고가의 무인헬기가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해 바닷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경은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과실 등 추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첫 회의를 연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20분쯤 서귀포시 이어도 남서쪽 142km 해상에서 5000t급 경비함정 5002함에 배치된 무인헬기 '루펠E(사진)'가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5002함은 무인헬기를 동원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을 가장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고도를 하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무인헬기를 조종하는

해경 대원이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체가 상공에서 갑자기 둔 뒤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무인헬기에는 바다에 뜰 수 있는 부력 장치가 있지만 당시 사고에선 무용지물이었다. 무인헬기 기체 양쪽에 달린 이 부력장치는 바다에 추락하면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해 해상에 뜰 수 있게 설계됐지만 하나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하나는 작동 중 사고 충격으로 기체에서 이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무인헬기는 바다에 추락하자마자 속절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해경은 무인헬기 인양을 검토했지만 사고 해역 수심이 45m로 너무 깊어 포기했다.



바다에 수장된 무인헬기는 지난해 3월 해양경찰청이 원거리 임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기종이다. 서귀포해경 소속 5002함을 비롯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 태안해경서 소속 등 1500t급 이상 경비함정 7대에 각각 배치됐다.

무인헬기는 길이 약 1.8m로, 최대 75분간 비행할 수 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가 설치돼 구조물이나 인장 사람이거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포착해 영상으로 바꾸는 광학 열상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대당 가격은 2억원가량이다.

그동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채증하려면 해경함정이 어선과 불과 1km 떨어진 곳까지 근접해 사진 촬영을 해야했지만, 무인헬기는 경비함정 반경 20km까지 이동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범위를 20배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을 무인헬기로 추적해 나포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해경이 해당 무인헬기로 거둔 첫 성과였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있는 지 4개월 만에 몇번 써보지도 못한 고가의 장비가 바다에 수장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와 학계가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또 찾아온 고사리철, 이것만은 꼭...

소방본부 '길 잃음 사고 주의보'... 최근 3년 288건

둘 중 한건꼴 4~5월 발생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봄철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29일자로 발령했다.

28일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2020년 86건, 2021년 98건, 2022년 104건 등 총 28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은 경우가 11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등산·오름 탐방 중 109건(38%),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66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4~5월에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142건(4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의 95%(107건)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소방본부는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간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드론과 119구조견을 활용한 수색 훈련을 통해 구조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해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수환 제주소방본부장은 "길 잃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일행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며 "특히 길을 잃었을 때는 119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대정읍 양돈장 화재... 6개동 중 4개동 전소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 4개동이 전소됐다.

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2분쯤 신도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후 3시36분쯤 초진에 성공했으나 이 불로 양돈장 6개동 가운데 4개동이 전소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재산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백금기자

제주출입국 직원 2명 "청장에게 폭행 당했다" 경찰 "조만간 조사 계획"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2명이 청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2명이 A청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날 낮 A청장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불러 진정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담해안 투명기약 28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안에서 관광객들이 투명기약을 타며 청정바다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불법 조업 280t급 중국어선 1척 나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쯤 차귀도 북서쪽 117km 해상에서 281t급 중

국 쌍타당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호는 갑판에 조업 규격에 어긋난 그물을 신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호 갑판에서 발견된 그물코 크기는 47.8mm로, 우리나

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그물코가 최소 54mm 이상인 그물을 사용해야한다.

또 조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그물은 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 등으로 씌워 조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A호는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 이상민기자

전기장판 과열로 주택 화재

단독주택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다.

28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53분쯤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냄새와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18분 만에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A씨가 골반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서 추산 16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도영기자

한림항 들어오던 바지선 계류중인 해경 함정 충돌

한림항에 입항하던 바지선이 해경 함정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895t급 바지선 A호가 항구에 계류 중이던 제주해

경 소속 P-36정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해경 P-36정 좌현 일부가 파손되고 출입문 등도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P-36정은 경비활동을 위해 출항했다가 지난 25일부터 한림항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충돌 사고 당시 경고 방송을 실시했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대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늄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10TH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샵샵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리제약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